

## 호시토게의 계단식 논

호시토게의 계단식 논은 사진작가들이 사랑하는 명소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200여 개의 논에 물이 채워져 하늘을 비추는 물거울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싱그러운 초록빛의 벼 줄기가 황금빛으로 바뀌고, 이삭의 무게로 인해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살랑입니다. 겨울에 첫눈이 논을 하얗게 뒤덮은 장면 또한 무척 인상적입니다.

이는 도카마치 시민들이 수백 년 전부터 감상해 온 풍경입니다. 산간지역에서는 경작할 평지를 늘리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 논을 만들었습니다. 녹은 눈과 용천수 그리고 다른 흐르는 물이 관개용수(논밭에 공급하는 물)로 사용되며, 비탈 꼭대기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흘러듭니다. 능선 꼭대기에 위치한 너도밤나무 숲도 물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녹은 물과 빗물을 두꺼운 뿌리와 낙엽 점토층에 저장하고,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로 끌어옵니다.

계단식 논은 사람이 설국의 혹독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앞으로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도록 계단식 논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 비진바야시

너도밤나무들이 곧게 뻗어 마치 브러시 털처럼 뽁뽁이 늘어선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너도밤나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너도밤나무는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거목으로 큰 수관을 가지며, 심지어 자기 씨앗조차도 가까이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가능한 한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경쟁하며 가지를 넓게 치거나 구불구불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의 너도밤나무들은 이렇게 곧고 슬림하게 줄을 지어 위로 뻗어 있는 걸까요?

예전 이 지역은 다양한 크기와 수령의 너도밤나무들이 우거진 자연림이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대에 토지 소유주가 도료로 이주하면서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는 성목을 모두 베어 숲으로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다음 해 봄, 남겨진 어린 묘목들은 햇빛을 빼앗는 경쟁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진귀한 광경에 매료된 지역 주민들은 이 숲을 명소로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비진바야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비진바야시는 도카마치의 매력적인 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과학관, 에치고 마쓰노야마 ‘숲의 학교’ 교로로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고고학적 발굴

밭밑 땅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 따르면 시나노 강 유역(현재의 도카마치시 포함)에서는 약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토기조각 등 오래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면서 밝혀졌습니다.

토기조각은 연대를 측정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베일에 싸인 고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뼈와 같은 유기 유물은 일본의 산성토양때문에 이미 소실되었지만, 탄화된 고대 식사 흔적은 토기에 남아 있어 당시 거주자들의 식생활에 대해 알려줍니다. 토기의 형태에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토기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형태였으나, 니가타 특유의 ‘화염형 토기’처럼 중기의 토기는 매우 장식적이며, 종교적 혹은 의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도카마치시 박물관에는 국보를 포함한 1,000 점 이상의 출토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설국에서의 초기 정착민에 대해 알게 된 모든 내용을 2개 언어(영어와 일본어)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를 지원하는 유료 음성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직물문화

도카마치는 겨울철 다설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제설차나 전기난방 같은 현대적인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기 전에는 겨울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지는 않았습니. 적어도 5,000년 이상 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시나노 강 유역의 산과 들에 풍부하게 자생하는 식물인 저마(모시)를 사용해 천을 짜왔습니다. 농사가 휴경기에 들어가는 겨울 동안 사람들은 실을 뽑고 천을 짰습니다.

도카마치의 직물 장인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다양한 종류의 천을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는 비단염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직물은 아마도 ‘지지미’일 것입니다. 가벼운 지리멘의 마직물로, 18세기에 무사들의 여름 의식용 의상으로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도카마치에서는 지금도 전통적인

염색과 손으로 짜는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모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견직물 가방이나 넥타이, 테이블러너 등이 대표적입니다.

## 기모노 제작

도카마치에는 오래전부터 견직물이나 식물섬유로 만든 직물 등 다양한 직물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도카마치는 기모노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의복인 기모노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실제로 기모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식물섬유로 만든 천은 일반적으로 짜기 전에 실을 염색하며, 직조 과정에서 다양한 색을 조합해 무늬를 만듭니다. 반면 견직물은 직조 후에 염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디자인이 더 복잡합니다. 도카마치에서는 유젠이라고 불리는 방염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젠 염색 기모노는 보통 길이 13~16m 정도의 한 필 천으로 낭비 없이 만들어집니다. 기모노 장인은 소매와 몸통이 될 부분을 미리 계산하고, 최종 결과를 염두에 두어 한 필의 천을 염색합니다. 무늬가 봉제선에서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기모노의 경우 디자인 구상부터 완성까지 제작에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도카마치에서는 여전히 많은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한 기모노라도 제작에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아한 기모노를 만드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